

주제 특강 I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 동유럽의 한국어교육 연구

김소영(University Of Sofia, Bulgaria)

### 1. 들어가기

동유럽 국가는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를 시작한다. 동유럽의 동쪽 지역인 발칸 반도 국가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학과가 생기면서 한국 대학과 동유럽 국가 대학 간의 교육 협력과 교류가 시작되지만, 한국학과는 소수의 정원으로 일본학과 중국학보다 인기가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 세계 각국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의 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수요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K-POP의 열풍, 특히 방탄소년단의 인기로 10대의 한국어 수요가 늘면서 불가리아에서는 1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세종학당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거나, 매주 지방에서 6시간씩 밤 기차를 타고 소피아까지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불가리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많고 일반인의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류 덕분이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냉전 시기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수교를 하고 6·25 전쟁 원조와 복구 지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비에트 연방국의 일원으로 북한과 다방면으로 교류를 하였다. 50년대 초반 6·25 전쟁 후 전쟁고아들이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동유럽 국가로 보내지고, 전쟁 복구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북한 젊은이들이 동유럽으로 유학을 오면서 동유럽 국가와 북한은 서로 학생 교류를 시작한다. 불가리아에서는 1953년 불가리아인 교사와 북한인이 공동으로 북한 학생을 위한 ‘불어 문법’책을 개발하여 출간하는 등 북한 학생들의 불가리아어 교육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동유럽 국가 학생들은 북한과의 교육, 문화 교류 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유학을 하러 갔고,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온 현지인이 ‘조선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를 가르쳤다. 헝가리의 경우 70년대 ‘조선어’강좌가 운영되었고, 그 외 동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동유럽으로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파견된 남한의 객원 교수, 한국에서 유학한 동유럽 현지인 등이 ‘한국어’ 강좌 및 ‘한국학과’를 개설하여 한국어를 가르쳤다. 소비에트 연방국의 와해로 동유럽 국가들이 남한과 교류하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도 북한 중심의 교육에서 남한 중심의 한국어 교육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동유럽을 유럽의 중부 지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과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발칸 반도 지역(구유고슬라비아 연방,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으로 나눠서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중부유럽(Central Europe)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중부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구사회주의 시절 북한과 수교 후 6·25 전쟁 원조와 복구 지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바르샤바대)와 체코(프라하대)는 50년 초부터 ‘조선어’ 강좌를 열었다. 헝가리의 경우는 폴란드, 체코보다 약 27년 후인 70년대 말부터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어’ 강사는 북한으로 유학을 갔다 온 현지인들과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인 교수였다. 그 당시에는 ‘조선어’ 즉 북한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1990년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경제, 문화 교류 등이 활성화되자 점차 북한말 대신에 남한말을 가르치게 된다. 90년 수교 후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재 지원,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등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했고,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남한어를 정식 한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 등으로 유럽 공장으로 부상하였고 한국 기업도 V4)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 친환경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전환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V4 국가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어 수요는 더 늘 것이고 한국어 교육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2.1. 폴란드의 한국어 교육<sup>2)</sup>

현재 한국학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교는 바르샤바대학교(University of Warsaw),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University of Adam Mickiewicz), 야길론스키대학교(University of Jagiellonian), 브로츠와프대학교(University of Wrocław)이다.

바르샤바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폴란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53년 중국어문학과와 강좌 중 하나로 ‘조선어’ 강의가 개설되었고, 1983년에 ‘일본어문학 및 한국학과’로 독립하게 되었다. 1989년 남한과 폴란드가 공식적인 수교를 한 이후에는 남한에서 바르샤바대 한국학과에 교수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남한의 이현복 교수와 북한의 로길용 교수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여름 로길용 교수가 평양으로 돌아가고 그 후 북한으로부터의 교수 파견은 중지되었다. 그 후 폴란드 출신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학과를 이끌어가고 있다. 1994년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하였고, 2015년 10월부터 한국학과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Adam Mickiewicz University)는 1998년 10월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여 2003년 한국어문학과를 개설하였고, 야길론스키대학교(Jagiellonian University in Cracow)는 1999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였으며, 브로츠와프대학교(University of Wrocław in Wrocław)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시작하였다.

바르샤바대학교와 브로츠와프대학교의 한국학과는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학, 철학, 종교, 예술, 문화, 사회 등의 과목도 가르치고,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와 야길론스키대학교는 한국어 강의에 치중한다. 폴란드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 교수와 폴란드 교수가 함께 쓴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1, 2, 3(Koreański dla Polaków 1, 2, 3),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 문화 30강(Kultura koreańska – wykłady dla polskich studentów) 등이 있다.

1)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체

2) 정현숙(2016),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1) - 폴란드의 대학을 중심으로, 『구보학회 14집』, 251~283쪽.

## 2.2. 체코의 한국어 교육<sup>3)</sup>

동유럽에서는 체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1950년 프라하 까렐대학교 철학부에 전공학과로 조선어 학 과정이 개설되었다. 1972년까지는 Alois Pultr 교수가 1972년 이후에는 블라디미르 푸체크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를 가르쳤다. 이 시기에는 북한과의 일방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 도서를 입수하고 학생들도 북한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 후 1993년 체코와 한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한류의 영향으로 조선어학 과정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한국학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인 교수의 파견과 체코 학생들이 한국 유학 및 연수를 거치고 돌아오면서 한국어 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에는 올로모우츠 팔라츠키 대학교에 비즈니스 한국어학전공이 학사과정으로 개설되었다. 까렐대학교 한국학과 교육 목표는 한국어, 문화,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이고, 학사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180학점 중에서 실용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가 된다. 그리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읽기 교육 중심으로 독해 능력을 강조한다. 반면, 팔라츠키대학교 비즈니스 한국어학전공은 한국과의 교류를 위하여 한국어와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가장 중요한 학습영역으로 보고, 비즈니스 한국어 및 언어학 관련 비중은 180학점 중 40% 정도이다. 학생들은 비즈니스 한국어학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어와 언어학 관련 전공필수과목뿐만 아니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국제경제와 유럽연합경제, 경제 관련 법규 등의 필수과목을 들어야 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학의 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로 양성되어 한국 기업이나 한국 관련 현지 기업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할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

## 2.3. 헝가리의 한국어 교육

1980년대 중반 이후 Dr. Mártonfi Ferenc 지도로 ELTE에 "한국학 스튜디오(Koreai Stúdiium)"이 운영되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991년 이 스튜디오의 책임자인 Dr. Mártonfi Ferenc 사망 이후 폐지되었다. 중국어과 교수인 Dr. Mártonfi Ferenc (1945-1991)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실습생으로 한국어에 대해 연구한 후 귀국하여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중국어과 학생 몇 명에게 교외 보충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논문 5편도 발표했는데, 그 중 한국어의 존대법, 국어사, 한글의 발생과 한국어의 인칭문제에 대한 글은 헝가리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Mártonfi 교수의 요절로 인해서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90년대 말까지 중단되었다.

그 후 부다페스트 대외무역 단과대학과 헝가리 ELTE (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했는데 현재는 ELTE대학교에서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헝가리는 1998년 2월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이후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협력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측에서는 헝가리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교인 ELTE대학교에 여타의 다른 동양언어학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과가 아직 설립되지 못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으면,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다.

그리하여 한국어학과 개설의 예비단계로 1996년 9월부터 2007년까지 '한국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과목으로 '한국어, 한국어사, 한국학 입문, 한국의 불교사,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3) 광부모(2018), 팔라츠키대학교 비즈니스한국어학전공의 현황과 발전 방안

무속,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화사' 과목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07년 12월 헝가리 학과 승인위원회(The Hungarian Accreditation Committee)는 ELTE 대학교의 인문대학소속 동양어-문화학과에 한국어 전공이 설립되는 것을 정식으로 인가하였다. 이로서 2008년 9월부터 한국학 부전공은 전공으로 승격하여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한국학을 지원하여 전공으로 학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에 석사과정(2년), 2018년에는 박사과정(3년)이 개설되었다. 엘테대 한국학과는 동아시아학부 내에서 연혁이 가장 짧은 학과임에도 '20/21'학년 입학생의 합격 커트라인 기준 일본학(379점) 및 중국학(338점), 더불어 어문학/지역학 분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문학(391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커트라인과 1지망 선택 비율(40%)에서 나타나듯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헝가리 청소년층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면서, 엘테대 한국학과 이외에도, 부다페스트(한국문화원 부속, 2012년 설치) 및 제 2의 도시, 데브레첸 등 2개소의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다.

#### 2.4. 슬로바키아의 한국어 교육<sup>4)</sup>

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1918년부터 1992년)에서 분리되었다. 인구 5천 5백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1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투자 진출했고 한국 기업 진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였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코메니우스 대학교 철학학부 동아시아학과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다. 한국어 강사인 김명신 박사는 주로 철학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2012년 9월에는 코메니우스 대학교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현재 교원은 한국인 파견 교수 1인과 슬로바키아인 2명이다.

### 3. 발칸 반도 국가의 한국어 교육

발칸반도는 유럽의 동남쪽 지역으로 구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알바니아가 속한다. 이들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자적이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알바니아도 냉전 시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가 많지 않았던 폐쇄된 사회였다. 스탈린이 죽은 후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 노선 강요와 경제 간섭, 유고슬라비아와 화해 등으로 1961년 소련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립 중이던 중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1970년 중국이 미국에 접근하자 이를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여 중국과의 관계조차 냉각되는 등 동유럽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소련 붕괴 후에 공산 정권의 몰락에 따라 발칸반도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한국어 교육도 한국과 수교를 한 1990년 이후 몇몇 국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대학 기관에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된 나라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3개국뿐이다. 구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들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수차례

4) <https://fphil.uniba.sk/katedry-a-odborne-pracoviska/katedra-vychodoazijskych-studii/httpswww-migraciafphilunibaskindexphi d5941/> (코메니우스 대학교 홈페이지)

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했고 한국과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고 슬라비아가 7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도 늘어나고 인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 3.1. 슬로베니아<sup>5)</sup>

슬로베니아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류블랴나대학교 아시아학과가 유일무이하다. 류블랴나대학교는 1919년에 개교한 슬로베니아 최고이자 최대의 교육기관으로 1995년 이 대학에 아시아학과(당시 아시아아프리카학과)가 설립되었다. 아시아학과에 2003년 한국어 강좌가 생긴 뒤,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따른 유럽 지역 교육 개편과 함께 한국학 전공의 전신인 한국학 모듈이 생겼다. 그 후, 아시아학과 강사들의 협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대한민국 대사관 등 한국 정부기관의 도움과 한국 및 슬로베니아 기업의 지원으로 슬로베니아의 한국학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2012년 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씨앗형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학이 태동할 수 있었고, 2013년 4월 한국문학, 한국문화 등 어학 이외의 강좌가 개설되면서 한국학 전공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5년에 슬로베니아 최초로 한국학 (복수) 전공이 개설되었다. 현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석사과정은 없다. 박사과정은 일본학, 중국학, 한국학전공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박사과정생은 7명, 한국학 전공 학부는 총 3년 과정으로 현재 재학생은 39명이다.

### 3.2. 크로아티아<sup>6)</sup>

크로아티아는 2013년 한국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로 한국인에게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유명해졌고, 2019년에 현대자동차가 크로아티아 초고성능 전기차 회사 리막 오토모빌리(Rimac Automobili)에 1,1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 또한, K-pop,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대학(3개소), 세종학당(1개소), 한글학교(1개소)가 있다. 자그레브 대학교, 플라 대학교, 스플리트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크로아티아 수도인 자그레브에 위치한 자그레브 대학교에는 2개의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자그레브대 인문대학 극동아시아어학과에 한국어 강좌가 2015년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었고,<sup>7)</sup> 2019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에서 객원 교수 1명을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대학 크로아티아어 대학에 세종학당재단에서 2020년 세종학당을 설치하고 교원 1명을 파견했다. 자그레브대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에는 한 학기(15주)동안 총 45시간으로 30명 정도의 재학생이 등록한다. 세종학당은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총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학생 수는 96명이다. 세종학당은 각 단계를 마치면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받는다. 이 수료증은 한국 비자나 교환학생 신청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호응이 아주 높다. 이외 자그레브 시내에 위치한 한글학교에서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2010년에 개원하였고, 2013년부터 한글학교 내 한국어 학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글학교와 한국어 학당의 강사는 동일인 1명이다. 이외

5) 강병용(2017), 슬로베니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179』, p.111-135.

6) 류재원(2021), 크로아티아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자그레브 대학교와 자그레브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2권 1호』, p. 49-72.

7) 한국어 강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고 강사 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국제교류재단의 교수 파견으로 한국어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그레브 내 사설 한국어 학원으로 'ENBE'가 있다. 류재원(2021)의 자그레브 대학생과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그레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20대 여성이 73%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39.3%), 한국어에 대한 관심(3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9%), 한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4.5%),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2.2%), 기타(8.8%)순으로 나타났다.

### 3.3. 세르비아<sup>8)</sup>

세르비아의 전신인 구유고슬라비아는 1989년 12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2년 이후 한국 유학생들이 베오그라드대학에 유학을 시작하면서 양국 간 교육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베오그라드대학 인문대학이 한국어 과목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0월부터이나 이전에도 동양학과 커리큘럼 상에는 한국어 과목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자원과 교수요원의 전무 등 여러 여건으로 실제 운영되는 못했다. 베오그라드대 인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정근재 박사는 1999년 초 학교 당국에 한국어 과목 설치를 건의했으며,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해 가을 한국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99년 한국어 과목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2007-2008학년도 1년을 제외한 전 기간 한국어 과목은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08학년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베오그라드대학 총장 및 인문대학 학장 일행이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한국학 진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수도인 베오그라드 외 지방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비사드 대학교, 니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노비사드 대학교에는 2017년 10월 철학 대학 언어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세종학당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6개월간 운영 후 2020년 1월 정식 세종학당으로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현지 교원 2명과 세종학당 재단 파견 교원 1명, 총 3명의 교원이 있다. 학생 수는 138명이다. 그리고 노비사드대학교 철학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양과목(3학점)으로 지정하였고, 수강생 수는 20명이다. 세르비아에는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 교원 해외파견사업으로 베오그라드, 노비사드, 니쉬에서 고등학교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8월 한국어 수업이 중단된 상태다.

### 3.4. 북마케도니아<sup>9)</sup>

북마케도니아공화국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했지만 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28년 후인 2019년에 이뤄진다. 북마케도니아는 오랫동안 한국의 미수교국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많지 않아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 생소한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BTS의 인기 상승으로 북마케도니아에서도 젊은 층 사이에 K-pop 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류 덕분에 최근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글을 다 익히고 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2005년 북마케도니아 거주 교민들이 스코피에 키릴메토디 대학 문과대학장과 만나서 한국어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2008년 국제교류재단에서는 파견 교수 1명을<sup>10)</sup> 스코피에 키릴 메토디 대학으로

8) 세르비아 최근 한국어 교육 현황은 세종학당 교원인 김원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9) 북마케도니아 한국어 교육 현황은 스페스 랑겔로프 교수님과 정경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10) 북마케도니아에는 한국대사관이 없으며 주불가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처음 북마케도니아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할 때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소피아대 한국학과 교수인 필자에게 한국어 강사 추천을 의뢰했고 소피아대 일본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페스 랑겔로프 선생을 추천했다. 스페스 랑겔로프 교수는 현재 외대 그리

보냈고, 인문학부 내 교양과정으로 한국어 강좌가 신설되었다. 처음 3년 동안은 한국어를 1학기에 60시간씩 배웠고, 2011년부터는 한국어 외 한국 문법, 한국어 음운론, 어휘론, 한국 문명, 문장론 및 의미론, 한국 현대문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2016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 파견 교수가 불가리아로 돌아가고 스코피에에 거주하는 한국인 강사 1명이 강사로 채용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3.5. 루마니아<sup>11)</sup>

루마니아는 발칸 국가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2,1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1990년 3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루마니아에서는 1996년 부쿠레슈티대학교 외국어문학대학에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 3 언어”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 후 클루즈나포카 시에 있는 바베시보여이대학교에서도 1997년에 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국어 강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정치학부, 경제학부 학생들, 그리고 루마니아 정부 기관(특히 외무부와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청강을 했다.

현재 루마니아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기관은 총 7개이다. 이중 대학 과정에서 한국학 학사학위를 수여 하는 곳은 부쿠레슈티 대학교와 바베시 보여이 대학교이다.

부쿠레슈티대학교에서는 1996년 “제 3 언어”<sup>12)</sup>로 한국어 과정을 열었고, 2003/2004년도 학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한국학 강사의 파견까지 중단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4년 하반기부터 부쿠레슈티대학교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파견 교수 제도가 부활하였으며, 그 당시 파견 교수인 황정남 박사와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Diana Yuksel 교수의 노력으로 2005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격상되었다. 수업 시간도 늘어서 한국어 외 한국어 구조와 언어학,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 문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다. 2017년까지는 격년에 한 번씩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문화중심 도시 클루즈나포카에 있는 바베시보여이대학교는 1997년 국제협력단 자원봉사단원으로 파견됐던 강사 2인에 의해 강좌를 운영해 오다가 2002~2004년 2년 동안 폐강이 되기도 했으나 박사과정 한국 학생에 의해서 다시 개강했다. 그리고 2005년 가을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박영숙 선생이 파견되었다. 20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대학 내에 한국문화센터라는 부속기관을 경제대학에 설치하고 학술 및 문화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 루마니아의 EU 가입과 한국 기업 투자 증가로 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한국어를 일반교양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였고, Codruta Cuc 선생이 고려대에서 일 년 간의 한국어 펠로우십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어과 강사로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한국어 문학’으로 주전공과 부전공을 창설하였다. 첫째는 두 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나 현재는 학부생은 120명으로 양적으로 현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몇 년간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한류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강좌를 대학 비학위 선택과정으로 운영하는 곳은 부쿠레슈티의 ‘루마니안 아메리카 대학교’와 이아쉬의 ‘이오안 쿠자 대학교’이다. ‘루마니안 아메리카 대학교’에서 한국어는 선택과목으로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 불가리아어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1) 루마니아 한국어교육 현황은 부쿠레슈티 대학교 Diana Yuksel 교수, 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인 김영성과 박영숙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12) 전공과 부전공 외의 기타 복수 전공 과정



한국 교민 대상 한글학교 수업도 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오안 쿠자 대학교’에서는 비학위 선택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강의를 개설하였고, 2018년 한국학 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한국인 연구원을 초빙하여 한국학 연구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국학 전공 개설을 추진 중이다. 세종학당은 2020년 부쿠레슈티 ‘디미트리에 칸테미르 크리스천 대학교’에 개설되었고 현재 ‘한국어’와 ‘태권도’반이 운영되고 있다.

### 3.5. 그리스, 알바니아

한국은 그리스와 1961년에 수교를 하고 조선·해운, IT, 인프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한국어 교육 기관을 하는 곳은 아테네 국립대학교와 아테네 한글학교이다. 아테네국립대 외국어교육센터 내 한국어 강좌가 2010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한국어 강사는 3명이고 2019~2020년 한국어 강좌에 등록한 학생은 97명이다. 이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은 1982년에 설립된 아테네 한글학교로 이곳에는 현지인 70여 명, 교민 자녀 1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알바니아는 1991년 한국과 수교했으며 교민은 106명으로 대부분 선교사이다. 알바니아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곳은 티라나에 있는 알바니아 한알학교가 유일하다. 교사 2명과 학생 25명이며 모두 한국 교민 자녀들이다.

### 3.6.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인구가 7백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불가리아는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2년 133년 전통의 소피아 국립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1995년 소피아대학교 내 동양어 문화센터에 한국학 전공을 개설하였고, 이후 동유럽 최초로 대학원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은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설립 26주년을 맞이한다.

26년이 지난 소피아대학 한국학과와 불가리아 내 한국어 교육은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 내에서도 15여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불가리아 내 한류 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류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피아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어능력시험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소피아대에서 올해부터는 토픽 점수가 3급 이상이면 소피아대 한국학과 입학전형의 필기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어 시험으로 개발된 토픽시험을 불가리아 대학(해외대학)에서 인정하여 입학전형 시험으로 대치하는 것은 한국학과가 개설된 세계 대학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이는 소피아대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높이 평가하고 불가리아 내 한국학의 발전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불가리아에서는 소피아대학교를 비롯하여 수도와 지방에 있는 5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학원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불가리아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13)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그리스·불가리아어과를 개설했다.

① 소피아대학교<sup>14)</sup>

불가리아의 한국어 교육은 1992년 3월, 소피아대학교 고대 및 현대어문학대학, 동양어문화 센터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sup>15)</sup> 당시 한국어 강좌는 일본학 전공생과 터키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아시아어 선택 필수 과목으로 2년 과정이었다. 일주일에 4시간씩 실용 한국어(한국어 회화)를 위주로 운영되었고 담당 교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장학생으로 소피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최권진 선생이었다.

선택 필수 과목으로 출발한 한국어 강좌는 더욱 발전하여, 1995년 10월 아시아어문화학과 한국학 전공으로 승격되었다. 2010년 3월 전임교원을 7명으로 늘리면서 일본학, 중국학이 속해 있는 아시아어문화학과에서 분리되어 한국학과로 독립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일본학·중국학·한국학 공동 석사과정 ‘동아시아문화’ 외에 한국학과 단독 석사과정인 ‘한국 사회와 문화’를 개설하였다.<sup>16)</sup>

현재 한국학과와 학생 수는 학부생 70명, 석사과정생 7명, 박사과정생 4명으로 총 81명이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2명의 학생이 한국학과에 입학하였다.<sup>17)</sup> 한국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국학과, 남동아시아학전공 등 소피아대학교의 다른 학과로 입학한 후 한국학과로 편입하거나 재수, 삼수로 다시 한국학과에 도전하기도 한다.

한국학과 입학생의 입학 동기도 예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학과 개설 초기에는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1지방인 일본학과에 들어가지 못해 한국학과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2010년부터는 한류 또는 한국 등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학과에 입학했다는 학생들이 늘었고, 최근 몇 년간은 일본학과에 다니다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올해 입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한류, K-pop 특히 BTS 팬으로 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한국어가 멋있게 들려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몇 년 사이 불가리아에서 한국학의 위상은 일본학과 중국학과 비교하여 현격히 올라갔다.

소피아대 한국학 전공에서 현재 시행 중인 4년제 학사과정 커리큘럼은 크게 1) 실용한국어, 2) 한국어학, 3) 한국문학, 4) 한국지역학(문화, 역사, 경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는 주당 한국어 수업 시간이 12시간으로 여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필수과목 외에 교수진의 상황에 따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한국 전통음악[사물놀이], 대중매체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어평가대비과정,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속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동아시아학과 및 동남아시아학과생은 선택 필수(제2 아시아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주당 4시간씩 배운다. 2020년 10월부터 석사 과정에 실용한국어 대신 통·번역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통역과 번역 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플로브디프 ‘파이시이 힐렌다르스키’ 국립대학교(개설 초기 현황)

2014년 10월 플로브디프대학교 응용언어학부에 세부전공으로 ‘영어-한국어’와 ‘불가리아어-한국어’전공이 개설되었다.

14) 설립 - 1888년, 현 학생 수 - 23,000명

15) 불가리아와 북한은 1948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냉전시기 동안 북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어 강좌는 개설되지 않았다.

16) 2020년 현재 동양어문화센터에는 한국학과 외 일본학과, 중국학과, 아랍학과, 터키-알타이학과, 고전 아시아학과 등 6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2013년에는 동남아시아학과가 추가로 개설되었다.

17) 2020/2021년 소피아대 신입생 모집 시 118개의 전공에서 8개의 전공이 1지방에 정원이 마감되었다. 한국학과는 유럽학, 경영학, 스칸디나비아학, 히브리어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아프리카학, 회계·재정학과와 함께 1지방에서 정원이 마감되었다. <https://www.mediapool.bg/sofiskiyat-universitet-zapalni-8-ot-118-te-si-spetsialnosti-news309806.html>(검색일:2021년 5월 9일)

2014년 응용언어학과 ‘영어와 한국어’ 전공 신입생은 총 17명이었고 ‘불가리아어와 한국어’ 전공 신입생은 11명이었다. ‘불가리아어-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한국어교육 중심 교육을 받고, ‘영어-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한국어 번역가를 목표로 공부한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2019년에는 ‘불가리아어-한국어’ 전공에 10명, ‘영어-한국어’ 전공은 15명이 등록했다. 2015년 ‘불가리아어-한국어’ 전공 입학생 2명, ‘영어-한국어’ 전공 입학생 4명과 비교해보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플로브디프대학의 한국어 수업 시간은 1학년 1학기 120시간, 2학기 120시간으로 총 420, 2학년과 3학년은 1학기 180, 2학기 180으로 총 360시간이고, 4학년은 1학기 180, 2학기 240시간으로 총 420시간으로 4학년 때 한국어 수업이 가장 많다.

### ③ 벨리코 터르노보 ‘성 키릴 메토디’ 국립대학교

2012년 10월 벨리코 터르노보 대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총 35명이 등록하였는데 수강생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일반인으로 대부분이 K-pop 팬이거나 한국 드라마 및 영화 팬이었다. 2013년 10월 벨리코 터르노보 대학교는 응용언어학 학생들에게 제1외국어로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이수하게 하고, 제2외국어로 한국어 및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외국어 한국어 과정은 1학년 1학기 375시간, 2학기 150시간으로 1학년 과정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 ④ 뉴 불가리아 대학교<sup>18)</sup>

2019년 10월 뉴 불가리아 대학교에 한국어 과정(1A-10명, 1B-5명)이 개설되었으며, 2020년 10월에는 한국어 A1 과정에는 15명, A2 12명, B2 5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매달 1회 한국 특강을 조직하고 있는데, 한국 역사, 사회, 전통·현대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강사와 소피아대 교수 등이 강의를 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 ⑤ 트라키아 대학교<sup>19)</sup>

2014년 트라키아 대학교에 한국 친구 동아리(K-club)가 만들어졌고, 클럽 운영은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출신인 트라키아 대학교 영문학과 강사가 담당했다. 이 동아리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문화 행사를 조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올해 10월부터 트라키아 대학교 수의학과에 한국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현재 7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작은 지방 도시의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정식과목으로 개설되고 5년 동안 매년 한국문화 행사가 개최된 것은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졸업생인 제냐 군다쉐바의 한국에 대한 열정과 노력 덕분이다.

18) 개설년도 1991년, 학생수 10,000명

19) 소피아에서 230기로 떨어진 산업도시임. 1995년에 설립되었고 학생수는 7000명임.

### ⑥ 18번 소피아 공립학교 “William Ewart Gladstone”<sup>20)</sup>

2011년 초 불가리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유럽 최초로 9월부터 한국어 전공 반을 개설하였다.<sup>21)</sup> 한국어 전공 반 학생들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부한다. 2011년 6월에 실시된 한국어반 입학생 모집에 총 156명이 응시하였고, 이 중 26명을 선발하였는데 한국어반은 일본어반 다음으로 커트라인이 높았다. 2013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는 반이 개설되어서 현재 한국어 전공 반은 1학년부터 12학년에 각각 한 반씩(정원 25명)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담당 교사는 불가리아인 3명인데 모두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출신이다. 현재 18번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300명이 넘는다. 2016년에는 8~12학년 과정을 마친 한국어 전공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2020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한국어 전공 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8학년으로 진학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어반 졸업생 수는 총 102명으로 2016년은 22명, 2017년은 24명, 2018년에는 28명, 2019년은 28명이었다. 18번 학교의 학년별 한국어 연간 시수는 2학년 64시간, 3학년 96시간, 4학년 102시간, 5~6학년 119시간, 7학년 108시간, 8학년 648시간, 9학년 144시간, 10학년 72시간, 11학년 144시간, 12학년 124시간이다. 8학년 한국어 수업은 연간 648시간으로 이 시기에는 한국어 교육을 집중시켜 어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⑦ 138번 소피아 공립학교

2020년 9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관광전공 반을 8학년에 개설하였고 소피아대 한국학과 4학년 학생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⑧ 97번 소피아 초등학교

2020년 9월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였고, 소피아대 한국학과 4학년 학생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⑨ 바르나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sup>22)</sup>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는 비영리 단체(NPO)로 불가리아 비영리단체법에 의해 센터장 및 교원 포함 총 9인의 이사로 시작되었다. 2020년 현재 7인(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소지 교사 2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에는 6명의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의 학생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한 단기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간 무료로 진행하던 수업을 유료 형태로 전환하여 학습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단순 취미 목적에서 벗어나 유학,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선별,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했다. 수강료 유료화와 함께 학

20) 1905년에 설립된 18번 학교는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불가리아의 우수 공립학교이다. 현재 재학생 수가 2,000명으로 불가리아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이다.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의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21) 2010년 김소영 교수가 18번 공립학교를 방문, 스토이체바 교장을 만나서 한국어 전공 반 개설을 건의하였고, 학교 측에서 긍정적인 검토하여 교육부에 한국어 반 개설 승인을 요청하였다.

22) 바르나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제공 - 바르나 한국어 교육센터 김세희 소장.

습자의 연령대가 10~20대로 교체되었다.

2016년 4월 바르나 1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2020년 현재까지 3년 동안 꾸준히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한국어 과정 개설 후 2017년부터 한국 교육부를 통해 이곳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 ⑩ 소피아 세종학당

소피아 세종학당은 재외공관(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 및 소피아대학교 연계형으로 2013년 7월에 신규학당으로 지정되었다. 소피아 세종학당은 소피아대학교를 현지 운영기관으로 하여 연계형으로 승인된바, 소피아 세종학당 교원은 소피아 대학교에 소속된 자를 교원으로 선발하였다. 2019년 현재 불가리아인 교원 2명, 한국인 교원 4명이 한국어 및 문화를 교수하고 있다. 한국어는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세종 한국어 1~8’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종 한국어 1~2권은 현지인이 교수하며 세종 한국어 3권부터는 한국인이 교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표준한국어 정규 과정은 1년에 2학기로 운영을 하고 있다. 1학기는 매해 3월~6월, 2학기는 9월~12월로 운영을 한다. 1학기는 60 시수로 1주 4시수, 15주로 운영된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정규과정 문화 반을 개설하여 일반 문화 및 사물놀이를 교수하고 있다. 소피아 세종학당에서 사물놀이반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사물놀이를 교수할 수 있는 교원이 있으며 둘째, 사물놀이를 연습할 수 있는 악기를 갖추고 있으며 셋째, 사물놀이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습실이 있기 때문이다. 소피아 세종학당은 세종학당 재단의 지원으로 상기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수강생들이 사물놀이를 공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량을 끌어올렸다. 2017년에는 세종학당재단 문화사업부 신규 사업인 ‘세종문화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여 문화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물품 지원을 받아 체험형 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재단 파견 문화 전문가의 수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종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한식, 한복, 한지공예, 케이팝 댄스, 케이뷰티, 사물놀이 수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문화 아카데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6년부터 교수를 시작한 사물놀이 수업이 2017년부터 정규 문화 수업으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국악원 소속 파견 강사를 통해 사물놀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을 배양했다는 점이다.

소피아 세종학당 출신 중에 4명이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학부 과정에 입학하였고, 1명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한국학을 수학하고 있다. 세종학당 수강생에서 한국학과 학생으로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것은 발전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62명인데 그중 10명은 사물놀이반이고 나머지는 초급과 중급 한국어반, 비즈니스 한국어반이다. 한국어 과정 50명의 연령대를 보면 10대 16명, 20대 18명, 30대 11명, 40대 5명이고 직업은 학생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자 5명, 의사 2명, 회사원 4명, IT 4명, 시각 디자이너 2명, 프리랜서 2명, 기타 5명이다. 가족이 함께 한국어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해는 의사 2명이 한국어 초급반이 등록했다. 의사인 아버지가 K-pop 팬인 딸, 자신의 동료 의사와 함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드라마나 영화 팬인 30~50대가 한국어를 많이 배웠는데 K-pop의 인기로 10~20대 수강생 수가 늘어나면서 K-pop 팬인 10대 자녀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부모가 자식을 한국어 반에 입학시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⑪ 부르가스 한국어 교육 현황<sup>23)</sup>

부르가스 지역은 2018년 공립학교에 한국어반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의 한국어 수학 동기 조사 결과 60% 이상이 'BTS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그다음은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였다. 첫째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 전문 고등학교, 코자카팔리아타 초·중학교 및 영어 외국어 고등학교 3개의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다. 2019년에는 수학 중·고등학교, 키릴 메토디 초·중·고등학교 2개의 학교에 추가로 한국어반이 개설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1년에 총 180 시수의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가장 어린 학생은 5학년이며 12학년 학생까지 한국어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한국어 수업 신청자 수는 60~70명이며 상기 지정된 학교 외에 이탈리아어 외국어 고등학교, 프랑스어 외국어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반이 구성되었다.

## 4. 나오기

동유럽 국가들은 90년대 초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한국과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하며 한국어 교육도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하였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기존에 '조선어'강좌를 열고 북한말을 가르치던 학교에서는 한국과 수교 후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현지인이나 한국인 파견 교수의 영향으로 남한말을 표준어로 가르치게 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동유럽 내 한류 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2, 3년에 걸쳐 인기 케이팝 그룹인 BTS 등의 10대 팬들이 팬덤을 형성하여 한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으로 최근 한국학과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는 이미 미디어와 한류를 토대로 한국 문화와 대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한국학과에 오기 전, 인터넷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설학원과 고등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를 미리 학습하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유럽 내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이들을 한국학의 학문 후속 세대로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류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육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발칸지역 국가 중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에서는 90년대에 한국학과가 대학에 정규학위 과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국들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한국학을 정식 학위 과정으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가리아 소피아대 한국학과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전임교원이 8명으로 유럽 한국학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피아 세종학당도 운영 요원 2명, 교원 6명, 총 8명의 현지인과 한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등 발칸 국가들의 한국어 교육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말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와 소피아 세종학당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어교육자 워크숍에서 발칸한국어문화학회를 발족시켰으며 앞으로 이 학회를 통해 발칸 국가의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위해 교류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케이팝, 특히 BTS의 인기 때문이다. 2010년 불가리아에서 한류 열풍이 일면서 3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이 주로 한국어를 배웠으나 그 후 청소년 K-pop 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학습자 연령도 10대, 20대로 낮아졌다. 이들은 K-pop 댄스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나서 춤을 추거나 콘서트를 열고 그들의 부모도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등 온 가족들이 드라마, K-pop의 팬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층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어 강사 지원, 문화 교구 및 교재 지원 등으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현대 문화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국가

23) 부르가스 한국어 교육 현황 제공 - 부르가스 한국어 교사 김수미 선생님

의 교육부, 현지 학교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사 워크숍, 문화강좌 등을 조직하여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증대하고 교수 역량을 함양하고,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사회, 문화적 시야의 지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 성과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소영(2011), 불가리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2011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교육』, 한국학 중앙연구원.
- 김소영(2012), 불가리아의 한류와 한국어교육, 『Journal of CEESOK 13』, 비엔나대학교.
- 최권진(2005), 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제 특강Ⅱ

동유럽의 한국학 연구

동유럽의 한국학 연구

파베우 키다(University of Potsnan, Poland)



#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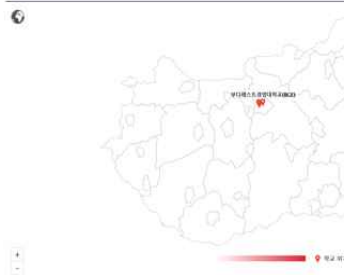
# 체코



# 슬로바키아



# 헝가리



한국인 거점별 분포

## 소역사-체코

- 유럽 가장 오래된 한국학 - 프라하 대학교 1950년
- Vladimír Puck 교수
- Miriam Löwensteinová 교수
- Marek Zemanek 교수

## 소역사 - 폴란드

- 바르샤바 대학교
- 아담 미츠키에비즈 대학교
- 야기엘로니안 대학교
- 브로츠와프 대학교

소역사-  
헝가리

- ELTE 대학교
- Mozes Csoma 교수
- Beatrix Mecsi 교수

소역사-  
슬로바키아

- Comenius 대학교
- Milos Prochazka 교수

프라하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기초문법</li> <li>한국학개론</li> <li>한자</li> <li>한국외지법</li> <li>철학 입문</li> <li>아시아 문화의 형성</li> <li>아시아의 사상</li> <li>프로세미나</li> </ul>
2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제2외국어</li> <li>한국어기초문법</li> <li>한국어 텍스트 읽기</li> <li>한자</li> <li>한국어 장단 연습</li> </ul>
3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학사 논문 연구</li> <li>한국어 어휘론</li> <li>한국어 텍스트 읽기</li> </ul>
수업 선택 과목 1.0.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역사, 한국 문화, 한의 한국 문화, 한국 근대사</li> <li>아시아 근대사 형성</li> <li>논문 연구</li> <li>한국어 및 텍스트의 형식</li> </ul>
1.0학년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이론문법</li> <li>한국어 통역 연습</li> <li>한국어의 발달사</li> </ul>
필수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문화의 역사와 형성,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 아시아 문화의 언어와 문화</li> </ul>

ELTE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li>한자</li> <li>한국어 역사</li> <li>국문 문법 및 교육</li> <li>한국어</li> <li>한국어 텍스트 읽기</li> </ul>
2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학</li> <li>한국어 회화</li> <li>한국어 역사</li> <li>한국어 전통 문화</li> <li>한국 사회</li> <li>한어 한국 문화</li> <li>한국어</li> <li>한국어 회화</li> </ul>
3학년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한국어</li> <li>한국어 번역 연습</li> <li>한국어 이론학 입문</li> <li>한어 한국 문화</li> <li>논문 연구</li> <li>한국어</li> <li>일본어</li> <li>한국 현대사</li> <li>한국어 문법</li> </ul>
1.0학년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학</li> <li>한국 전통 문화</li> <li>한국어 번역 연습</li> <li>국문 전통 문화</li> <li>상동문사</li> </ul>

포즈난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실용 한국어 제2외국어 한국어 기초 한국어 입문 일반대학 입문 한자 논리학 일반 입문 실용 한국어 제2외국어 한국어 초급
2학년 학사	한국어 기술 중급 한국어 문법 한자 한국어 생활 실용 한국어 제2외국어 한국어 기술 중급 한국어 중급
3학년 학사	한국어 중급 한국어 문법 한국어 번역과 실용 실용 한국어
필수 석사 과정	한국어 사회,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1, 키르시스 한국어 1, 한국어 문법
1.0 학년 석사	실용 한국어 일반어 한국어 번역 연습 한국어 중급 연습 한국어 전문 분야 번역 연습 논문 연구
필수 석사 과정	한국어 경제,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2, 키르시스 한국어 2, 한국어 생활 문법

Comenius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4년, 석사 2년)

1학년 학사	한국어 회화 1.1 한국어 문법 1.1 한국어 중급 연습 1.1 한국어 쓰기 1.1 한국어 기초 한국어 회화 2.1 한국어 문법 2.1
2학년 학사	한자 1.1 한국어 상급 연습 한국어 키르시스(간접) 한국어 신문 읽기 1 한국어 회화 3.1 한국어 키르시스(간접) 1 한국어 신문 읽기 2 한국 현대사 한자 2
3학년 학사	한국어 사회 대학의 역사와 현재 키르시스 한국어 한국어 키르시스(읽기) 번역 1 고급 한국어 회화 1.1 한국어 생활 한국어 키르시스(간접) 3
4학년 학사	한국어 키르시스(읽기) 번역 2 이천고 문쓰기 논문 연구
필수 석사 과정	한국어 고급 어사(읽기) 연습, 한국 현대사 고급 한국어 회화 3.1, 4.1, 5.1 한국어 학제론(중국어)과 어휘론 1.1
1.0 학년 석사	한국어 상급 연습 한국어 전문 키르시스(읽기) 1.1 한국어 번역 연습 1.1
필수 석사 과정	한국어 1.1, 동아시아의 경제, 한국 현대사



## 연구와 문제점

- 단행본 출판
- 공동 프로젝트
- 강사와 교수 부족
- 한국인 학자와 협력
- 한국국제교류재단 역할
- 한국학 중앙 연구원 역할
- 자매 대학교 협력

감사합니다